

<연세대학교 논술>

표 해석은 무엇인가?

Hwanism in Orbis Optimus

이 칼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wanism 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표 대응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표 문제는 연세대학교 문과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로 합격/불합격이 나눠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문화” 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기출문제입니다.

18. 표는 갑국의 가구 형태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전체는 A, B지역으로만 구성됨) [3점]

(단위: %)

연도 및 가구 형태	1995년			2005년		
	전체	A지역	B지역	전체	A지역	B지역
1인 가구	2.6	2.5	3.0	6.9	6.5	8.8
부부 가구	5.2	4.3	8.0	9.9	8.1	18.1
2세대 가구	71.0	74.3	61.6	68.4	71.2	55.3
3세대 이상 가구	18.7	16.2	26.3	11.7	11.0	15.0
기타 가구	2.5	2.7	1.1	3.1	3.2	2.8

* 핵가족 : 부부 또는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확대 가족 : 2세대 이상의 (편)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기타 가구 : 형제 가구, 친족 가구, 비혈연 가구

- ① 1995년 1세대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낮다.
- ② 2005년 독거 노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높다.
- ③ 1995년 대비 2005년 전체에서 핵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 ④ 1995년과 2005년 모두 A지역의 가구 수가 B지역의 가구 수보다 적다.
- ⑤ 1995년 대비 2005년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형태인 가구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사회문화에서 표의 출제의도와, 논술에서 표의 출제의도를 비교해 보시면 논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들은, 아주 Detail한 요소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x년대비 y년의 a는 높다.낮다

- x년대비 y년의 b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 증가율이 줄어 들면 실제량은 감소했다. 등등..

2)

이 문제만 그런걸까요? 다른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는 2011년도 9월기출문제에
요.

10. 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증감률과 구성비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

항목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인과의 혼인 증감률	22.3	-8.5	-3.1	-3.6	-8.0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22.4	-3.4	-3.7	-1.5	-10.7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22.0	-21.9	-1.3	-10.5	1.5
총 혼인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	13.5	11.7	10.9	11.0	10.8
외국인과의 이혼 증감률	26.4	47.1	41.3	29.8	3.9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52.0	65.1	45.1	39.5	4.2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3.2	23.1	34.5	11.1	3.0
총 이혼 대비 외국인과의 이혼 비율	3.3	4.9	7.0	9.7	9.4

- ① 2005년 대비 2009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여자가 외국인인 경우보다 남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더 많이 감소하였다.
- ②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총 혼인 건수가 감소하였다.
- ③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전년 대비 이혼 건수 증감률은 2005년보다 2009년에 더 적다.
- ④ 2006년 이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⑤ 연도별 외국인과의 혼인 대비 외국인과의 이혼 비율은 2007년보다 2006년에 더 높다.

비슷한 내용을 묻고 있죠. 다른 기출문제들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사회문화에서 표풀이문제는 아주 Detail한 요소들의 변화요소만을 묻고 있는겁니다.

정리할게요. 사회문화 표풀이는 사소한 요소들의 변화의 캐치를 요구한다.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논술 표풀이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또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사회문화 기출문제와의 논술문제와의 비교만으로도 스스로 뭐가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표풀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다음은 연세대학교2011 인문계열 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라>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험을 했다.

[실험1]

50명의 피험자를 무작위로 집단 '갑'과 집단 '을'로 나누었다. '갑'에 배정된 피험자 25명에게는 "'배설물'에 대한 다른 표현이나 동의어, 은어 등을 세 개 쓰시오. 예를 들면 '똥'이라고 쓰시오."라는 질문지를 주어 배설물에 대해 떠올리도록 유도했다. 반면 '을'에 배정된 25명에게는 "'친구'에 대한 다른 표현이나 동의어, 은어 등을 세 개 쓰시오. 예를 들면 '벗'이라고 쓰시오."라는 질문지를 주어 배설물이나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떠올리도록 했다. 잠시 후 두 집단의 피험자 모두에게 미완성된 12개의 단어를 동일하게 주고 완성하도록 했다. 그 12개에는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할 수 있는 단어가 6개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시__'는 '시체'로, '__레'는 '장례'로 완성할 수 있다. 이러한 12개 중 몇 개가 죽음과 연관된 단어로 완성되었는지를 세었다.

[실험2]

한 대학의 기숙사에서 성별과 학년이 동일한 50명의 기숙사생을 상대로 [실험1]처럼 단어를 완성하도록 요청했다. 집단 '갑'은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학생 25명이고, 집단 '을'은 화장실과 멀리 떨어진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 25명이다. 두 집단 모두에게 미완성된 6개의 단어를 동일하게 주고 완성하도록 했다. 이 6개 중 2개는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할 수 있는 단어였다. [실험1]과 마찬가지로, 완성된 단어 중 죽음과 연관된 것의 수를 세었다.

아래 표는 각 실험에서 죽음과 연관시켜 완성된 단어 수의 집단별 평균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실험 1		실험 2	
	갑 (25명)	을 (25명)	갑 (25명)	을 (25명)
단어 수	0.64개	1.80개	0.21개	0.71개

여기서, 표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만 보세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하나요? 사회문화처럼 하나하나 변화를 찾아가야 하나요? 찾을 것도 없습니다. 분석하신 분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답을 먼저 말하면. 이 제시문 (라)에선 실험 1과 실험 2는 서로 같은 결과 "배설물관련 일 때, 죽음을 연상하지 못한다. 반면 친구나 복도 등의 단어들을 연상했을 때, 죽음을 더 잘 연상했다." 딱 이 한 마디의 "결론"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제시문과의 대응 문제지요. 표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또 다른 기출문제 볼게요.

다음은 연세대학교 2011 사회계열 기출문제에서 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보완적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두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상태 분포(%)*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전체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이상	
상	10.2	16.8	27.0	17.4
중	48.1	66.8	60.4	69.4
하	41.7	18.4	22.7	23.2
총계	187명	691명	266명	1,184명

[표 2] 소득 수준별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상태 분포(%)*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교육 수준		
		고졸 미만	고졸	대학 이상
상	상	12.0	16.6	27.2
	중	42.7	66.8	47.2
	하	45.3	16.6	25.6
	소계	117명	428명	196명
중	상	8.0	17.4	27.8
	중	69.2	62.1	69.1
	하	28.1	20.5	18.6
	소계	18명	182명	44명
하	상	7.0	11.5	23.5
	중	64.4	66.4	64.7
	하	38.6	22.1	11.8
	소계	67명	181명	17명
총계		187명	691명	266명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음.

또 풀어보신 분들을 위하여 결론만 말하면, 표에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은 <표1>에서는 비례한다. 하지만 건강상태 “하”에서는 비례하지 않는다. <표2> 에서도 비례한다. 하지만 소득수준 상일 때 건강상태 하일 때는 <표1>과 같은 비례하지 않는 문제를 가진다. 그러나, 소득수준 중, 하 일 때 건강상태가 하 이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표의 내용은 하나의 “결론” 입니다. 여러분들은 표를 해석 하실 때, 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즉, 연세대학교에서 표 문제는 사회문화의 표 문제처럼 년도 별로 변하는 디테일 적 요소들을 “전혀”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의 흐름, 주제, 방향성 을 캐치할 수 있느냐? 를 묻고 있죠. 이 2제시문 외에도 모든 7개의 기출문제가 동일한 원리로 풀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표 해석을 하실 때, 표의 큰 주제 하나만 잡자. 라는 마인드로 푸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물론 간단해서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이 간단한 결론하나가 여러분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만들어 드 릴겁니다.